

[1] 만일 우리가 권세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여쭙고자 할 때, 겸손과 존경심 없이는 감히 하지 못할 것인즉, [2] 하물며 만물의 주님이신 하느님께는 온갖 겸손과 순결한 경건심으로 간청해야 할 것이다. [3] 많은 말로써가 아니라, 마음의 순결함과 통회의 눈물로써 우리 (간청이) 들어 허락되는 것임을 알 것이다.

[4] 그러므로 (기도가) 하느님의 은총에서 영감을 받은 열정으로 길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, 기도는 짧고 순수해야 한다. [5] 모든 이가 모여 있을 때 기도는 짧게 할 것이며, 장상의 신호가 있으면 모든 이들은 함께 일어설 것이다.